

충남 논산에 위치한 (주)우성양행은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탑티어에 속하는 기업이다. 모기업인 우성사료와는 축산업 분야에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높은 성장도 이뤄냈다. 우성양행에서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나기선 상무이사는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10위권인 우성양행은 첨가제, 의약품 쪽으로는 3위권이고, 팜세이프, 농장 소독 등 농장 청결제 분야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시장점유율만 높은 것이 아니다. 철저한 제조과정 속에 6년 동안 단 한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GMP(동물용의약품 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기준)를 준수하며 적합한 제품을 생산해 오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제조분야에서 시장점유율, 안전분야 모두 선두에서 있는 우성양행이 어떠한 안전관리와 경영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봤다.

경영진과 실무진의 안전에 대한 환상적인 조화 (주)우성양행

취재 박병탁 기자 ppt@safety.or.kr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

우성양행이 무사고 행진을 이어올 수 있었던 데는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이 바탕이 됐다. 나기선 상무이사 등 경영진은 생산관리팀의 이영재 공무과장이 추진하는 안전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소방훈련이 시작되면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직원들을 독려한다. 훈련을 주도하는 이 과장의 직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시켜 주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 속에 이 과장은 내년엔 ‘패닉훈련’을 기획중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른바 공포감에 판단력이 흐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닉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대피훈련으로 이를 극복시키기 위함이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각종 안전설비의 설치작업도 막힘없이 진행된다. 2011년에는 단 한차례의 사고도 난적이 없는 리프트 설비를 위험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면 교체했다.

이영재 과장은 “안전관련업무는 기안하는 대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예산문제에 있어서 걱정할 부분이 없다”면서 “경영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안전업무를 수월히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경영진의 안전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 우성양행의 안전환경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나기선 상무이사는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퇴사할 때까지 최대

한 뒷받침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안전관리 지원과, 백제병원으로부터 건강검진 등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영진은 직원들을 동반자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우성양행의 실무를 맡고 있는 이영재 과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상과 소방방재청장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실무진의 빈틈없는 안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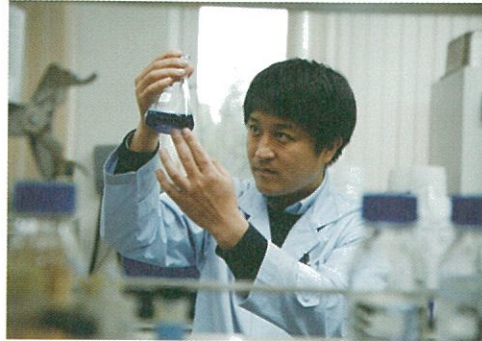
우성양행은 무재해 일수를 별도로 기록하지는 않지만 약 6년 동안 단 한차례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무사고 뒤에는 실무진의 꼼꼼한 안전관리가 있었다.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영재 과장은 직원들이 위험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언제든 안전담당자인 자신을 호출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 과장이 직접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다. 끊임없는 직원들의 호출로 이 과장은 쉴 새 없이 사업장을 돌아다녀야 하지만 덕분에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었다.

이 과장이 걱정하는 부분은 오히려 사소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다. 그는 "작업 도중 체인에 손이 끼거나 하는 등의 사고는 우성양행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간단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위험하다 싶은 작업은 내가 동석하고, 더 심각한 문제는 전문 작업자를 불러 시키면 된다"면서 "특히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조언하는 사항을 따르기만 하면 안전작업장은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안전을 전적으로 이 과장에만 일임하는 것은 아니다. 직원들은 1차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자신이 운용하는 설비에 대한 관리를 맡는다. 여기에 더해 부서 내 직원들 간 교차로 안전점검이 이뤄지고, 마지막으로 이영재 과장이 사업장을 돌면서 3중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과 직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우성양행의 안전행진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만들어 낼지 기대해 볼만하다. ☺

미니인터뷰



나기선 상무이사

정부의 세제지원 확대할 필요 있어

안전을 위한 교육과 설비투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모든 안전설비를 갖추고 싶지만, 경영진 입장에서는 예산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과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적절한 유인책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소방시설 설치나 안전교육에 대한 투자금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재정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영재 생산관리팀
공무과장

안전관리자의 위상 제고 시급

주변 회사들을 보면 안전관리자는 낮은 직급이거나 다른 업무를 중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여건에서는 당국의 관리감독이 실시되더라도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개선하기 힘들 것입니다.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그에 적절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안전관리자의 위상은 제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